

“부동산 비수기인데”...저금리·전세난에 집값 불안 고조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이 저금리와 전세대란에 ‘불장’(상승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자,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끝났지만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

16일 국토연구원의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달 20~30일 조사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1.1로, 전월(132.4) 대비 8.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15년 4월(143.3) 이후 최근 5년7개월 내 최고치다.

이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 등을 0~200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지수 상승은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연은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를 실시한다.

이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하는 데 지난달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국토연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141.1...5년7개월내 최고 이사철 끝물에도 집값 상승·거래 증가 전망 우세 전세대란에 전셋값 불안도 지속...비수도권 심화

수도권(138.1)은 전월 대비 8.2p 상승했다. 서울이 138.8로, 전월(131.4%)보다 7.4%p 올랐으며 경기(132.0→140.0), 인천(116.1→127.2) 등도 전월 대비 지수가 상승했다.

비수도권(144.3)은 전월 대비 9.3p 올라 수도권 대비 상승 폭이 더 컸다.

울산(166.8), 대구(159.5), 부산(153.4), 세종(147.3), 광주(145.2)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나, 경북(144.9), 경남(142.6) 등 지방도시로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세시장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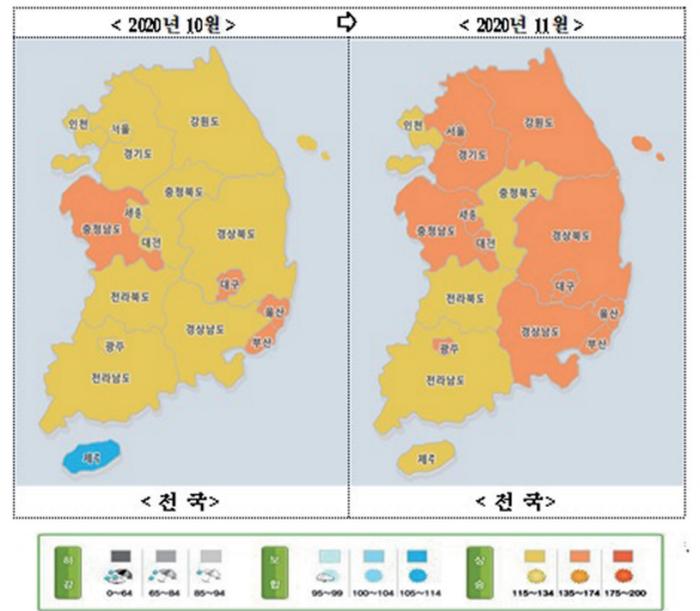
128.7로 전월(130.2) 대비 1.5p 하락했으나 여전히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134.1에서 131.0으로 3.1p 하락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125.6에서 126.0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방은 울산(138.2), 세종(138.1), 대구(134.8), 충남(131.9) 등 순으로 높았다.

주택(매매·전세)과 토지시장 상황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전국 기준 131.7로 전월대비 3.5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131.3)은 전월대비 2.2p 상승했고, 비수도권(131.8)은 전월대비 4.6p 상승해 모두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신봉우기자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전국)



‘킹 연어와 초록입홍합’ 청정수역 남극해 특별기획전
뉴질랜드 남쪽 남극해에서 자란 킹 연어(King Salmon)와 초록입홍합(Green-Lipped Mussel) 등으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청정수역, 남극해 특별 기획전’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에서 16일 개막했다. ㈜BLK가 선보인 킹연어는 전세계 연어 가운데 최상위 1%에 해당하는 품종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무(無)항생제, 무(無)백신, 무(無)GM이라는 3무(無)의 무공해 청정 제품으로 세계 최고 셰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록입홍합 역시 최고의 프리미엄 요리 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격렬한 춤을 추는 마오리족이 관철음이 없는 이유가 초록입홍합을 즐겨 먹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행사는 31일까지.

뉴질랜드 남쪽 남극해에서 자란 킹 연어(King Salmon)와 초록입홍합(Green-Lipped Mussel) 등으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청정수역, 남극해 특별 기획전’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에서 16일 개막했다. ㈜BLK가 선보인 킹연어는 전세계 연어 가운데 최상위 1%에 해당하는 품종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무(無)항생제, 무(無)백신, 무(無)GM이라는 3무(無)의 무공해 청정 제품으로 세계 최고 셰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록입홍합 역시 최고의 프리미엄 요리 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격렬한 춤을 추는 마오리족이 관철음이 없는 이유가 초록입홍합을 즐겨 먹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행사는 31일까지.

부모에 돈 빌려 집 산 30대...정부 “이자 갚나 지켜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해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탈세 수법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

16일 대응반이 밝힌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

주 사례를 보면 20대 A씨는 최근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소명했으나, 사실상 부모가 대신 집값을 치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로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을

액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응반은 B씨의 사례를 국제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도 국제청에 통보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필요 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편법 증여 외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사례도 들이 잡혔다.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씨는 최근 8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반은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제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 중이다. 30대 B씨도 최근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국토부에 소명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매수대금 전

김민정기자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통해 편법증여 109건 적발 보험료 대납해 집값으로...과감해진 편법증여 수법 부모에 차용증 써도 4.6% 적정이자 내야 감시 피해

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주택 거래 중 109건이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이 중 친족 등 특수관계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주택 거래량 3128건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3.0%)로 나타났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 지역(0.34%)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여전히 도심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시금으로 납부했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다. 사실상 A씨의 부모가 보험료 대납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셈이다.

대응반은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제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 중이다.

30대 B씨도 최근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국토부에 소명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매수대금 전

김민정기자

50회 이상 통행료 미납 4977대 국토부, 강제징수 시범사업 착수

알림톡·문자·우편 등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 고지

정부가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대상자에게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현중 도로국장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코로나 속 연말, 호주청정우로 건강·안전·맛 집콕 파티

29일까지 ‘친구야, 놀자’ 페이스북 이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올 연말에는 ‘집콕 파티’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축산공사가 집콕 파티의 흥미를 더하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16~29일 연말 홈파티 이벤트 ‘친구야, 놀자’를 연다.

호주청정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한 다음 이벤트 포스트에 ‘연말을 위한 나만의 호주청정우 레시피’를 댓글로 달고,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호주청정우 15만원 선물 세트(1명), 5만원 선물 세트(3명), 파riba게트 2만 원 교환권(5명) 등 푸짐한 경품을 나눠준다.

해당 이벤트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면 당

첨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년 1월4일 개별 통지한다. 연말 감성 가득한 메뉴를 찾는 고객을 위해 호주청정우를 활용한 ‘홈룩 레시피’를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에서 선보인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훌륭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비프 웰링턴’, 하얗고 부드러운 매콤한 ‘소고기 크림 캐서롤’ 등이다.

레시피가 간단해도 여러 가지 재료 준비가 귀찮다면 ‘호주청정우 안심 스테이크’가 있다. 부드러운 식감과 고급스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메뉴다.

호주축산공사 한국대표부 고객사 지사장은 “연말연시를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호주 천혜 대자연에서와 건강하고 깨끗한 호주청정우를 활용한 연말 홈룩 레시피와 온라인 홈파티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벤트 시대에 발맞춰 준비한 온라인 이벤트와 간편하지만 특별한 레시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희기자

“양식어가 눈물뺨자”...홈플러스, 민물장어 상시판매

홈플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가 막히고 시세가 급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를 돕기 위해 17~30일 국내산 민물장어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민물장어 5t, 1만 5000마리 물량을 확보해 100g 당 4790원에 팔고, 이후에도 상시 판매에 나선다.

그간 민물장어는 대형마트에서 주말 특판 행사 등으로 깜짝 등장한 적은 있지만 상시 판매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외식 메뉴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식 소비 의존도가 큰 만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백장어 산지가격은 1kg 당 3피 기준 지난해 12월 3

만6500원에서 올 12월 2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민물장어를 상시 취급해 장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신선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밥상의 단조로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